
어형 ‘쇠’[金, 鐵]와 ‘새[鳥]’의 고형(古形)

김영일 · 계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1.

이 글은 ‘쇠’(金, 鐵)와 ‘새’(鳥)의 고형(古形)을 문헌 자료와 지명 및 방언에 의존하여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논의의 과정에서 ‘르’음의 반모음화, ‘ㄱ’음의 변화 등에 관한 예도 제시될 것이다.

2.

2.1. ‘쇠’[金, 鐵]의 고형

‘金, 鐵’을 뜻하는 어형에는 고대 국어 이래 두 가지 형태 즉 ‘솔’과 ‘쇠’가 존재해 왔는데 이제 이것들을 문헌 자료 및 지명에서 찾아 제시해 보기로 한다.

2.1.1. ‘솔’계 어형

- ㄱ. 金橋謂西川之橋俗訛呼云松橋也 (삼국유사 권 3, 阿道基羅)
- ㄴ. 素那或云 金川 (삼국사기 권 47)
- ㄷ. 錐 솔웃초 俗呼錐兒 (훈몽, 중:7)

또 지명에서도 ‘솔’계 어형이 나타난다.

- ㄹ. 金谷里 [금곡, 쇠편, 금평, 솔편][마을] 경북-청송-청송-금곡리
- ㅁ. 솔모루[金盤][마을] 충북-괴산-증편-남하-금염실 동북쪽에 있는 마을
- ㅂ. 소내[金川][마을] 충북-진천-만승-금곡-금곡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 ㅅ. 소일[마을] 경기-오산-금곡 → 금곡리

ㄱ의 金橋와 松橋를 두고 도수희(1999:157)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松橋’는 ‘金橋’에 대한 訛呼가 아니라 동일한 다리 이름에 대한 이표기일 뿐이다…… 따라서 ‘松橋(솔다리)’는 오히려 ‘金橋(쇠다리)’보다 이른 보수형이라 추정된다.

ㄴ과 ㅂ에 나타나는 ‘素’와 ‘소’는 설단음(舌端音) ‘ㄴ’ 앞에서 ‘솔’의 어말음 ‘ㄹ’이 탈락한 형태이다. 또 ㅅ의 ‘소일’은 ‘솔실(金谷)>소실>*소일>소일’의 단계를 거친 변화형이다.

2.1.2. ‘쇠’계 어형

- ㄱ. 金壤郡本高句麗休壤郡 (삼국사기 권 35)
休壤郡一云金惱 (삼국사기 권37)
- ㄴ. 鐵曰歲 (계림유사)

ㄷ. 쇠жат 金城 (용가 7:7), 쇠재 鐵峴 (용가 1:50)

ㄹ. 金 쇠 금, 鐵 쇠 털 (훈몽, 중:15)

ㄱ의 金壤(또는 金惱) = 休壤에서 休를 석독자(釋讀字)로 보면 그 형태가 ‘쇠’와 유사해진다(休 쉴 휴(신증유합, 하:46)).

앞의 2. 1. 1-ㄱ, ㄴ과 2. 1. 2-ㄱ을 비교해 보면 고대 국어 시대의 신라 지역에서는 ‘술’계 어형이, 고구려 지역에서는 ‘쇠’계 어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水’를 뜻하는 어형이 신라 지역에서는 ‘勿’로, 고구려 지역에서는 ‘買’로 나타나는 것과 동일 유형의 현상이다.

그렇다면 ‘술’과 ‘쇠’의 어형상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우리말에는 일찍이 고대 국어 시기부터 ‘ㄹ’이 반모음(y)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었고 이 현상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 (1) 徐羅伐 ~ 徐耶伐
- (2) 加羅 ~ 加耶
- (3) 阿羅加耶 ~ 阿耶加耶
- (4) 達句(火) > 大丘 (삼국사기 권 34)
- (5) 巨露 (삼국사기 권 34) > 거유(鵝)
- (6) {
 - 봄놀- : 고기 뿔부리에서 봄놀오(魚躍岫)(백련 4)
 - 봄너- : 뿔은 봄닐씨오(월석 2:13-14)
- (7) {
 - 헐썩리- : 구차히 헐썩리디 아니함(소해 2:10)
 - 헤썩리- : 우으며 헤썩리느 배(소해 5:108)
- (8) {
 - 허러디- : 시름 허러듀미 이 오닛 아츠미로다(두해-초 22:11)
 - 허여디- : 붓디 아니함 허여디디 아니함(구방, 하:65)
- (9) {
 - 물이 : 내 물이 닐어 비러 오니(노변, 상:19)
 - 믹이 : 내 믹이 닐너 비러 오니(노해, 상:17)
- (10) 물+아지→뻘아지/믹아지
- (11) 방언에서

- ㄱ. 눈이 멀다~눈이 메다
- ㄴ. 돌창~되창
- ㄷ. 하늘바람~하늬바람(이상 함북 방언)
- ㄹ. 저근 물(小便) > 소매(전주 지방)
- ㅁ. 굴뚝~귀뚝(전라)
- ㅂ. 물~매(馬)(제주)

‘金, 鐵’을 뜻하는 두 어형 ‘술’과 ‘쇠’는 위의 (1)~(11)에 의해 술>쇠로 변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음운 변화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즉 ‘술’의 어말음 ‘ㄹ’이 반모음화하여 ‘쇠’로 변화한 것이다.

‘水’를 뜻하는 두 어형 ‘勿’과 ‘買’ 중에서 ‘買’는 쇠퇴하고(일부 방언에 미>미의 형태로 남아 있기는 하다) ‘勿’이 중세 국어 ‘물’을 거쳐 현대 국어에서 ‘물’로 변하여 존속하고 있는 데 반하여 ‘金, 鐵’을 뜻하는 어형은 ‘술’계 어형이 쇠퇴하고 ‘쇠’계 어형이 살아 남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金, 鐵’을 뜻하는 어형의 최고형(最古形)은 ‘술’이고 이것의 어말음 변화형이 ‘쇠’인데 이 ‘쇠’가 현대 국어에 존속하고 있다고 하겠다.

2.2. ‘새(鳥)’의 고형(古形)

문헌과 방언에서 ‘鳥’를 뜻하는 어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사이(평북 방언)
- ㄴ. 새
- ㄷ. 상이(제주 방언)
- ㄹ. 생이(제주 방언)

위 ㄱ~ㄹ의 어형 상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다음의 논의를 보기로 하자.

우리말에서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쟁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화

하여 나타나는데 이들 하나하나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 ㄱ. 피자기(피많은 사람)
- ㄴ. 겹재기(겹이 많은 사람)
- ㄷ. 노래자이, 춤자이, 칼자이
- ㄹ. 겹재(=겹장이, 제주 방언)
- ㅈ. 멧장이
- ㅊ. 환쟁이

위의 ㄱ~ㅊ에 나타나는 어형의 변화의 전후 관계를 알아보자.

먼저, 모음 사이에서 ‘ㄱ’이 탈락하는 예는 방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개감~개암(개암, 경기, 충청)
- 해거름~해어름(해거름, 경기)
- 새각시~새악시(새색시, 전남)
- 빼가리~빼아리(병아리, 전남, 경남)
- 사마구~사마우(사마귀, 경남)
- 깨고락지~깨오락지(개구리, 전남)
- 바구옷~바우옷(이끼, 전남)
- 파구~파우(파, 경북)
- 토구~토우(논개, 경남)

다음으로, ㄱ > ㅇ(또는 ㄱ~ㅇ)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육(土) { > 울 > 우(> 위)
> 응[지붕(=집+응)]
- 갈매기~갈멍이(갈매기, 제주)

돌새기~돌생이 (작은 돌, 제주)
 바다~바당(함북)
 눈두덕~눈두덩(함북)
 버데기~버텨이(다리, 심마니말)
 돌채기~돌챙이(도랑, 평북)
 나부래기~나부랭이(평북)
 구먹~구멍(전남)
 지시락~지시랑(기스락, 전남)
 바구~방우(바위, 경북)

이제 위의 ㅁ~ㅊ의 밑줄 친 어형들의 변화의 전후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A. 자기 { > 자이 > 재
 { > 재기
 { > 장이 > 쟁이

위 A의 어형 변화표를 근거로 하여 위의 ㄱ~ㄴ의 어형 변화의 선후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 *사기 { > 사이 > 새
 { > 상이 > 생이

‘鳥’를 뜻하는 고�형(古形)은 ‘*사기’로 추정되는데 이 어형은 우리나라 문헌이나 방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어에서 ‘까치(鶺鴒)’를 *kasasagi*(かささぎ)라고 한다.

“삼국지 위서 30(오환 선비 동이전)”에 보면 일본에는 본래 소, 말, 범, 표범, 양, 까치가 없었다고 한다(其地無牛馬虎豹羊鶺鴒).

또 “日本書紀 卷二十二, 推古天皇”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六年夏四月難波吉士磐金至自新羅而獻鵲二隻

위의 두 기록에 의하면 까치는 본래 일본에 없었는데 신라인이 이것을 일본에 가져간 것이다.

한편 “계림유사”의 鵲曰渴則寄를 진태하(1974)에서는 *ka-~~ce~~-ki로 읽고 있는데 여기서의 -~~ce~~-ki는 일본어 kasasagi의 -sagi와 유사하다.

또 “日本書紀 卷一, 神代 上”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鷺鷥此云娑娑岐

娑娑岐의 -娑岐도 -sagi의 표기로 인정된다.

이 밖에 일본어에서 鷺를 sagi라 하는데 이 sagi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 sirasagi(しらさぎ, 白鷺)
- daisagi(だいさぎ, 大鷺)
- goisagi(ごいさぎ, 五位鷺)
- herasagi(へらさぎ, 篋鷺) 등.

일본어에서 鵲이나 鷺鷥를 뜻하는 말의 뒷부분에 붙는 -sagi와 鷺를 뜻하는 어형 sagi가 곧 위에서 재구한 우리말 ‘*사기’와 일치하는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위의 2. 2.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새(鳥)’의 고행(古形)은 ‘*사기’로 추정되는데 이 ‘*사기’는 일본어에서 새 명칭어에 보이는 sagi(さぎ)에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어 sagi(さぎ)는 우리말 ‘새(鳥)’의 고행(古形)이다.

| 참고 문헌 |

- 김이협(1981), 『평북방언 사전』,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김태균(1986), 『함북방언 사전』, 경기대 출판국
도수희(1999), 『『삼국유사』의 할주 지명에 관한 해석 문제들』, 『언어학』
제24호
제주도(1995), 『제주어 사전』
진태하(1974), 『鷄林類事研究』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1987-1993), 『한국 방언 자료집 I~VIII』
한글학회(1991), 『한국 땅이름 큰 사전(상)』